

## 여중생의 시샘, 질투 및 분노가 또래관계에서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

강 다 겸

장 재 흥<sup>†</sup>

중앙대학교 청소년전공

본 연구는 여중생의 시샘, 질투, 분노가 또래관계에서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정서조절능력이 이들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경기지역의 중학교 3곳에 재학 중인 여학생 546명을 대상으로, 시샘 척도, 우정관계질투 척도, 분노 척도, 관계적 공격성 척도, 정서조절능력 척도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중생의 시샘, 질투 및 분노는 또래관계에서의 관계적 공격성과 정적상관이 있었다. 이것은 시샘, 질투, 분노감정을 많이 느끼는 여중생일수록 관계적 공격성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이다. 둘째,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여중생의 시샘, 질투, 분노와 관계적 공격성 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했을 때 질투의 경우, 정서조절능력이 높더라도 질투가 강해지면 관계적 공격성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노의 경우에는 정서조절능력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을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시샘, 질투, 분노, 관계적공격성, 정서조절능력.

\* 본 연구는 강다겸(2013년)의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일부 발췌·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장재흥,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청소년전공,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Tel : 02-820-5169, E-mail : jangjh@cau.ac.kr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로, 급격한 신체적·심리적 변화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심한 긴장과 혼란을 경험한다. 이 때문에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로 불리는데, 생리적으로 성적 욕구가 증가하고 공격욕구 또한 산만하고 방향성 없이 표출된다(송명자, 1995). 청소년기의 높아진 공격성에 대해 학자들은 욕구좌절에 대한 반응(Dollard, Miller, Doob, Mowrer, & Sears, 1939), 다른 사람과의 비교과정에서 우월감 위협에 대한 반응(Bers & Rodin, 1984), 원초아적 본능의 지나친 억압에 의한 반작용 등으로 설명해 왔다. 그리고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 동안의 공격행동은 상당히 지속적이고(Loeber & Dishion, 1983), 13~15세에 절정에 이르렀다가 그 뒤로는 점차 감소하는 것(Cairn, Cairns, Neckerman, Feruson, & Garipey, 1989; Loeber, 1982)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편 Crick과 Grotpeter(1995)에 의하면 공격행동은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외현적 공격성(overt aggression)은 대상을 때리거나 미는 등의 신체적 공격 혹은 말로 모욕하거나 욕하는 등의 언어적 공격을 의미한다. 반면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은 집단의 힘이나 압력을 이용하여 개인의 감정이나 사회적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나쁜 소문내기, 헐뜯하기, 소외시키기, 무시하기, 배척하기와 같이 사람들 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는 공격행동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형태이다(Crick, Bigbee, & Howes, 1996; Galan & Underwood, 1997). 가장 전형적인 예는 학교에서의 따돌림 현상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2차 조사(2012)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의 11.3%가

집단따돌림을 당했는데, 여러 피해유형들 중 피해의 지속기간이 가장 길고 그 정신적 후유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계적 공격성은 남학생에서 보다 여학생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외의 여러 학자들(Bjorkqvist, Lagerspetz, & Kaukiainen, 1992; Cairns 등, 1989; Galan & Underwood, 1997)은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대부분 겉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신체적 폭력을 주로 사용하는데 비해, 여자 청소년들은 언어적인 배척과 음해성 소문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해를 입히는 관계적 공격을 더 자주 나타낸다고 하였다. 국내의 조사연구에서도 여학생에서 관계적 공격성이 더 많이 관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사(2012)에 따르면 여학생의 집단따돌림 피해는 17.1%로, 남학생(8.4%)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문용린, 최지영, 백수영 및 김영주(2007)의 조사에서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관계적 공격을 더 많이 하였는데, 그 형태는 ‘욕하기’, ‘따돌리기’, ‘무시하기’, ‘통신수단을 이용한 언어폭력’ 등의 순이었다.

이렇듯 여자 청소년에서 관계적 공격성이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성의 경우 사회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가 되는데, 공격하고자 하는 대상의 친밀한 관계 혹은 사회적 지위를 해하는 방식이 상대에게 심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Roland, 1988). 여학생들은 주로 동성인 여학생을 괴롭히며 자기가 속한 그룹 혹은 학급에서 공격대상을 선택한다. 여기서 따돌림을 당하는 청소년은 친구관계에서 더 철저히 고립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어 심하면 우울증과 자살에 까지 이룰 수 있다(Owens,

Slee, & Shute, 2000).

관계적 공격성은 발생 시기측면에서 중학생 시기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진규(2000)의 연구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빈도는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문용린 등(2007)도 중학교 여학생에서 사이좋게 지내던 단짝 친구나 5~6명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이나 폭력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여중생들을 대상으로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관계적 공격성은 다양한 요인들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동안 주로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불안(Loudin, Loukas, & Robinson, 2003; Loukas, Paulos, & Robinson, 2005; Marsee, Weems, & Taylor, 2008), 타인의 인정에 대한 욕구(Larsen, Martin, Ettinger, Nelson, 1976), 충동성(Berstein & Watson, 1997; Olweus, 1994), 욕구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심(Dollard 등, 1939)과의 관련성이 연구되었다. 그 연구결과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불안과 타인의 인정에 대한 욕구가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으며, 충동성이 높을수록, 욕구좌절에 대한 인내심이 낮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관계적 공격성과 연관이 있는 정서에 대한 연구들도 일부 진행되어왔는데, 주로 질투와 분노정서가 초점이 되었다. 우선 질투(jalousy)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서 '질투'란 나와 내 친구의 양자관계에서 제 3자가 등장하거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제 3자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기반한 정서로, 불안과 불신, 거부 및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Vollong, McElwain & Miller, 2002). 질

투가 유발되기 위해서는 질투를 보이는 개인(the jealous individual)과 소중한 사람(the beloved)과의 일차적 관계, 소중한 사람과 경쟁자(the rival)와의 이차적 관계, 질투를 보이는 개인과 경쟁자와의 삼자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질투가 단순히 세 명의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고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질투를 보이는 개인과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여야 하며 경쟁자에 의해 친밀한 관계를 위협받거나 상실되었을 때 질투가 발생한다(White & Mullen, 1989).

몇몇 학자들은 관계적 공격성과 질투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Owens, Slee 그리고 Shute (2000)는 여자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서 질투 정서가 하나의 설명변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Grotperter와 Crick(1996)은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은 우정관계에서 타인을 배제시키고 질투하는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은 그들의 친구가 다른 사람과 노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이것을 알았을 때 행복해 하지 않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질투정서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심은신, 이동훈, 2011; 배재현, 최보가, 2006)가 수행되었다. 배재현과 최보가(2006)는 우정관계에서 질투정서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관계적 공격을 더 많이 한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로 외현적 공격을 하면 주위 다른 친구들로부터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심은신과 이동훈(2011)은 우정관계에서 질투가 의도귀인과 또래동조성을 매개하여 관계적 공격성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즉, 우정관계에서 질투정서가 일어나면 제 3자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관계적 공격을 하게 되고, 또한 또래와 동조하여 관계

적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정서는 분노(anger)이다. Feindler와 Ecton(1986)은 분노는 공격성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인지적 귀인을 통해 분노 감정이 일어나며 이 분노의 감정이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Izard(1977)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자신이 강렬하게 바라던 것을 제지당했을 때 분노가 유발된다고 보았는데, 이 제지에는 육체적인 한계, 외부 규범 및 제한 또는 자신의 무능력 등이 포함된다. 또한 Dollard 등(1939)은 인간의 생리적·본능적 힘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욕구좌절로 인해 공격적인 행동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분노는 좌절상황과 공격을 이어주는 매개변인으로서 공격을 유발시키는 주된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Siegel, Cousins, Rubovits, Parsons, Lavery, & Crowley, 1994). 즉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발생하는데, 이런 분노 정서는 또래관계와 학교 장면에서 학업 성취와 학급 입원 등 지위경쟁에서 욕구충족이 실패했을 때 청소년들이 많이 경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욕구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심과 충동성이 분노를 느끼게 하고, 분노가 관계적 공격성을 유발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분노와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연구가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Crick, Bigbee 그리고 Howes(1996)는 아동에서 분노의 결과로 관계적 공격성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들은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에게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대부분의 소년/소녀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1/3의 아동들은 소년/소녀 모두가 관계적 공격을 한다고 응답하였고, 2/3의 학생들은 소

녀만이 관계적 공격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국내에서는 박미영과 김은경(2002)이 여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응답자의 분노 수준과 집단따돌림행동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특히 학급 내 대인관계 위치상 중심부에 위치한 학생들의 특성분노 수준이 따돌림행위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샘의 정서도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시샘(envy)은 "자기보다 잘되거나 나은 사람을 공연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표준국어대사전, 2008)이다. Festinger(1954)에 따르면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의 지위를 자기와 비슷한 사람과 사회적 비교를 통해 이해한다. 이런 사회비교를 통해 사회적 지위·계층이 형성되는데, 자신의 위치가 스스로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에 있거나,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타인이 자신보다 높은 수준에 있을 때 시샘을 느끼게 된다. 시샘 정서는 열등감, 동경, 분개, 그리고 정서 경험에 대한 부인과 관계가 깊은데, 이런 경우 시샘은 상향 사회 비교 대상이 바람직한 속성을 가지는 것이 '불공평하다',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인식과 맞물려 적개심을 유발한다(Parrott & Smith, 1993; Smith & Kim, 2007).

시샘의 정서는 일상생활에서 질투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왔다. 이것은 이들 정서가 경험되는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적개심, 자신에 대한 열등감, 슬픔을 느끼기 때문이다(Smith, Parrott, Ozer, & Moniz, 1992). 그러나 Parrott와 Smith(1993)는 시샘은 개념적 측면에서, 그리고 경험되는 측면에서 질투와 명확히 구분된다고 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시샘은 다른 한 사람

이 자신에게 결여된 우월한 특성, 혹은 소유물을 가질 때 이것을 자신도 갖게 되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일어나며, 전형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열등감, 그것을 원하는 마음,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한 분노, 시샘하는 사람에 대한 악의(ill will)를 함께 경험한다. 반면, 질투는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을 제 3자에게 빼앗길 위기상황에 발생하며, 전형적으로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의심, 배신에 대한 화로 경험된다. 이러한 개념적·경험적 차이에 따라 시샘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비교(Salovey & Rothman, 1991), 삶의 만족감(Smith, Diener, & Garonzik, 1990), 사회적 정의(Smith, 1991)에 관한 연구와 관련을 맺으며 진행되어 왔다. 반면 질투는 애정관계(Mathes, 1986), 친구관계(Parker, Low, Walker, & Gamm, 2005), 형제관계(Volling, McElwain, & Miller, 2002)에서의 질투가 주목되어 왔다.

한편 시샘과 관계적 공격성간의 관계는 집단따돌림 현상을 면밀히 살펴보았을 때에도 유추가 가능하다. 따돌림을 잘 당하는 여학생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체로 주위의 주목을 끌거나 시샘을 살만한 돋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다(문용린 등, 2007; 송정아, 김영희, 2001; 김용태, 박한샘, 1997). 피해자들은 '튀는' 여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하거나 외모가 뛰어나고, 학급 반장과 같이 특별한 지위를 누리는 남다른 조건 때문에 다른 친구들의 시샘을 받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잘난 척 하거나 예쁘게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남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따돌림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학생들은 상대방과 비교하여 시샘을 느낄 때 관계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연구들로 볼 때, 질투와 분노정서가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소수의 경험적 연구에 의해 확인되고 있지만 시샘 정서는 유추가 될 뿐 그 관계성이 확인된 상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집단따돌림이 오랫동안 사회적 이슈가 되어왔지만 정작 가해자의 내적 정서특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가해자의 정서특성에 대한 기초연구가 없을 경우 좋은 집단따돌림 및 폭력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개발된 프로그램들은 용서상담프로그램(김광수, 양근성, 2012), 또래지지 프로그램(윤성우, 이영호, 2007), 유능성중재 프로그램(정계숙, 2002) 등 주로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들이고, 정작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공감중심 따돌림 예방프로그램(윤보나, 유형근, 권순영, 2009)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여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질투, 시샘, 분노와 관계적 공격성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집단따돌림 가해자의 정서특성을 밝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향후 집단따돌림 가해자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부정적 정서들과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역할을 또한 살펴보고자 하였다. Thompson(1994)은 정서조절(emotional regulation)이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서반응, 특히 집중적이고 일시적인 정서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수정하는데 관여되는 내재적, 외재적 과정'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정서조절은 정서를 느끼는 그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며, 정서변화를 위해 상황을 조절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노력이다(Eisenberg, Faes, Guthrie, & Reiser, 2000). 그리고 정서조절

능력은 정서와 관련된 지식과 학습된 내용을 행동으로 변환시키는 핵심능력으로서(Zeinder & Matthews, 2000), 정서를 의식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Mayer & Salovey, 1997).

한편, 정서조절 능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고 표현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게 행동할 것이라 일반적으로 예측된다(Eisenberg & Fabes, 1992). 그러나 적절한(optimal) 정서조절과 높은(high) 정서조절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Eisenberg 등, 2000). Block과 Block(1980)에 따르면, 과도하게 정서를 조절하는 것(over-regulation)은 억제되고 부적응적인 행동과 연관되며, 반면 정서조절의 결핍(under-regulation)은 통제력을 잃는 행동문제들과 관련이 있다. 즉 정서조절은 적절하게 조절되어야 하는 것이지 지나치거나 부족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과 일관된 현상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관찰되었다. 일례로 섭식장애(Lingswiler, Crowther, & Stephens, 1989), 알콜 중독(Cooper, Frone, Russell, & Mudar, 1995)은 빈약한 정서조절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의 만성적 억압과 같은 과도한 정서조절은 고혈압 및 관상심장 질환의 발생·유지와 관련이 있으며(Suls, Wan, & Costa, 1995), 지속적으로 정서를 억압할 경우 작은 질병이 더 큰 질병으로 악화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Pennebaker, 1990).

또한 정서조절은 정서의 강도와 상호작용하여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isenberg와 Fabes(1992)는 개인의 정서조절방식과 정서의 강도가 다양한 행동들의 질을 예측한다고 하였다. 일례로 Eisenberg, Fabes, Guthrie, Murphy, Maszk, Holmgren, 및

Suh(1996)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그들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가 강할 때 행동문제가 일어나기 쉬웠다. 반면 정서조절 능력이 중간이거나 높은 경우에는 부정적 정서가 강하더라도 행동문제를 덜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정서의 강도와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이 중요한 조절변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정서조절능력은 일반적인 공격성 표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알려져 있다. Dodge(1991)는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은 공격적 행동과 관계가 있다고 했으며, Kernburg(1975)는 공격성이 높은 아동의 경우라도 정서조절능력에 따라 공격성을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최근에서야 정서조절능력과 공격성과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Bohnert, Cmic, 그리고 Lim(2003)은 공격행동이 덜 정교화된 정서적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 한유진(2006)은 학령기 아동의 정서표현, 이해, 조절능력이 공격성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임을 밝혔다.

이상의 연구결과들로 볼 때, 개인의 정서조절능력과 경험된 부정적 정서의 강도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리라 추측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정서의 강도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이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가정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여중생이 집단 따돌림을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동성 친구에 대한 시샘과 질투 그리고 분노감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 정서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특히 여중생이

학교장면에서 동성친구에게 느낄 수 있는 시샘, 질투,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해소해 나가는 데 정서조절능력을 조절변인으로 하여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중생의 시샘, 질투, 분노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여중생의 시샘, 질투, 분노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여자중학교 2곳 그리고 남·여 공학중학교 1곳에서 남·여가 분반된 반의 여중생이었다. 연구자는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이들에게 총 588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였는데, 이 중 무응답과 불성실한 설문지 자료를 제거하고 총 546부를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1학년은 172명(31.3%), 2학년은 198명(36.3%), 3학년은 176명(32.2%)이며 평균 나이는 13.8세였다.

### 측정도구

#### 시샘

Massé와 Gagné(2002)가 청소년의 시샘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들은 Salovey와 Rodin(1986)이 발표한 53개의 질투와 시샘을 일으키는 상황을 토대로 35개의 시

샘을 일으키는 상황을 재구성하였는데, 요인 분석 결과 총 16개의 상황, 총 4개의 하위요인으로 묶여진다고 보고하였다. 1요인은 재정적, 물질적 부분에 대한 것이며, 2요인은 친구 관계나 자기 수행에 관한 개인적 안녕감, 3요인은 매력 있는 외모와 사랑받는 정도에 관한 인기도, 4요인은 학교성취와 관련한 지능, 재능에 관한 것이다. 이 척도는 총 16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상황에서 얼마나 시샘을 느끼는 지'를 Likert 5점 척도로 반응한다. 시샘을 일으키는 상황은 예를 들어, "1. ○○이는 내가 원하는 지위(예, 학급임원, 성적 등수)를 얻었다.", "4. ○○이는 나보다 더 예쁘고 매력적이다." 등이다. 이에 대하여 피험자는 1점 "전혀 시샘을 느끼지 않는다."에서부터 5점은 "매우 시샘을 느낀다."로 반응한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시샘을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는 .94로 나타났다.

#### 질투

청소년을 대상으로 Parker와 Low(1999)가 개발한 우정관계 질투척도(Friendship Jealousy Questionnaire: FJQ) 27문항 중 제 3자가 포함된 15문항만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나머지 12문항은 제 3자가 제외되어 있거나 사회적 비교 상황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감정을 묻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의 예를 들면, "1. 내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와 영화를 보러가자고 했을 때, 친구가 이미 우리 반 다른 친구와 가기로 했다고 말한다면, 나는 질투를 느낄 것이다.", "7.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우리 반에 있는 다른 친구와 같이 조별과제를 하게 되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나는 질투를 느낄 것이다." 등이다. 이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답하게 되어있다.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로 측정된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질투를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 는 .94로 나타났다.

### 분노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및 Spielberg(1997)의 한국판 STAXI(STAXI-K)을 사용하였다. STAXI-K는 분노수준과 분노표현을 측정하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분노수준만이 관심이었으므로 상태분노 10문항과 특성분노 10문항, 총 20문항만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분노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상태분노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분노를 측정하는 것이며, 특성분노는 개인의 특질에 따른 분노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하위요인의 구분이 없이 총 분노수준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Likert 4점 척도(범위: 0~3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를 많이 느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a* 는 .88로 나타났다.

### 관계적 공격성

Marsee, Kimons와 Frick(2004)가 제작한 자기보고형 또래 갈등척도(Peer Conflict Scale)를 한영경(200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또래갈등척도는 총 40개 문항, 4개 차원(반응적 관계적, 반응적 외현적, 주도적 관계적, 주도적 외현적)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성에 초점이 있으므로, 반응적관계적 차원, 주도적관계적 차원의 20문항을 사용하였다. Likert 4점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확실히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Cronbach a* 는 .79였고, 하위요인별로 보면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은 .70,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은 .59로 나타났다.

### 정서조절능력

조사대상인 청소년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Goleman(1995), Mayer와 Salovey(1993)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김경희(1998)가 제작한 교사용 유아정서지능 평정척도를 박인경(2010)이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 정서 인식 및 표현을 측정한 9문항(*Cronbach a* = .74),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를 측정한 9문항(*Cronbach a* = .76), 자기 정서 이용 12문항(*Cronbach a* = .92), 타인 정서 인식 및 배려 10문항(*Cronbach a* = .92), 대인 관계를 측정한 10문항(*Cronbach a* = .89)으로 5개의 하위요인,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1~5점을 부여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Cronbach a* 는 .95로 높았다.

###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2012년 7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수집되었다. 설문지는 서울, 경기 지역의 3개 중학교의 동의를 얻어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실시 후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주요 변인들인 시샘, 질투, 분노, 관계적 공격성 그리고 정서조절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인들(시샘, 질투, 분노)과 종속변인(관계적 공격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들과 종속변인의 관



계에서 조절변인(정서조절능력)이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자료 분석에서 관계적 공격성과 정서조절능력의 하위요인들은 따로 나누어서 분석하지 않았다.

관을 검증했을 때, 오직 분노만이 정서조절능력과 유의한 부적 상관( $r=-.190$ )을 나타내었다. 이는 분노가 높을 경우 정서조절능력이 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서조절능력과 관계적 공격성 간에는 낮은 부적상관( $r=-.110$ )이 나타났는데, 이는 정서조절능력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 결 과

여중생의 시샘, 질투, 분노, 관계적 공격성, 정서조절능력의 상관관계

여중생의 시샘, 질투, 분노와 관계적 공격성,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여중생의 시샘은 관계적 공격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r=.300$ ), 질투와 분노는 관계적 공격성과 각각 .269, .382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시샘, 질투, 분노가 증가할 때 관계적 공격성 또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각 정서들과 정서조절능력 간의 상

여중생의 시샘, 질투, 분노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여중생의 시샘, 질투, 분노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회귀모형의  $R^2$  값을 보았을 때 시샘, 질투, 분노는 관계적 공격성 변량의 18.9%를 설명하고 있다. 시샘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beta$ 값은 .148( $t=3.221, p<.001$ )로 나타났다. 질투는  $\beta$ 값이 .106( $t=2.334, p=.02$ ), 분노는  $\beta$ 값이 .304( $t=7.353, p<.001$ )으로 나타났다. 즉, 여중생의 시샘, 질투, 분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독립적으로 관계적 공격성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의 시샘, 질투, 분노가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의

표 1. 여중생의 시샘, 질투, 분노, 관계적 공격성,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

	평균	표준 편차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				
			1	2	3	4	5
1. 시샘	2.52	.859					
2. 질투	2.47	.905	.512**				
3. 분노	1.56	.419	.321**	.286**			
4. 관계적공격성	1.25	.214	.300**	.269**	.382**		
5. 정서조절능력	3.30	.600	-.053	.002	-.190**	-.110**	

\* $p<.05$ , \*\* $p<.01$

표 2. 여중생의 시샘, 질투, 분노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

	<i>B</i>	$\beta$	<i>t</i>	<i>R</i> <sup>2</sup>	<i>F</i>
(상수)	.857	-	23.577		
시샘	.037	.148	3.221***	.189	42.103***
질투	.025	.106	2.334**		
분노	.155	.304	7.353***		

\**p*<.05, \*\**p*<.01, \*\*\**p*<.001

정도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beta$ 값으로 보았을 때 분노 정서가 세 변인 중 가장 관계적 공격성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샘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

여중생의 시샘, 질투, 분노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로 하자.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시샘, 질투, 분노 중 한 변인과 정서조절능력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각 정서변인과 정서조절능력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여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조절효과가 유의한 경우 그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서조절능력 점수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높은조절 집단(+1표준편차 이상 집단), 평균조절 집단(-1~+1표준편차 집단), 그리고 낮은조절 집단(-1표준편차 이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 정서변인에 대해서도 위와 유사하게 표준편차 값을 중심으로 높음(+1 표준편차이상 집단), 평균(-1~+1표준편차 집단), 낮음(-1표준편차 이하집

단)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토대로 각 교차집단(3×3)의 관계적 공격성 점수를 산출하여 이를 그림에서 표현하였다.

우선 시샘과 관계적 공격성 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표 3에서 제시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단계에서는 시샘, 정서조절능력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시샘×정서조절능력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R*<sup>2</sup>의 변화량이 .011 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시샘의 영향에 대해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에서 시샘( $\beta=.295$ ,  $p<.001$ )과 정서조절능력( $\beta=-.095$ ,  $p<.05$ )의 주효과는 모두 유의하였다. 그리고 2단계에서 시샘과 정서조절능력의 상호작용( $\beta=.478$ ,  $p<.05$ )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위에서 검증된 조절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림 1에서 제시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샘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관계적 공격성은 높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정서조절능력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시샘의 강도가 평균, 높은 시샘으로 증가할 경우 낮은 정서조절집단은 평균 및 높은 조절집단에 비해 관계적 공격성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

표 3. 시샘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b	$\beta$	t	b	$\beta$	t
시샘(A)	.074	.295	7.23***	-.032	-.127	-.650
정서조절능력(B)	-.034	-.095	-2.32*	-.116	-.324	-2.90**
A×B				.031	.478	2.20*
adj $R^2$		.096			.107	
F		29.84***			21.65***	
F변화량		-			4.86*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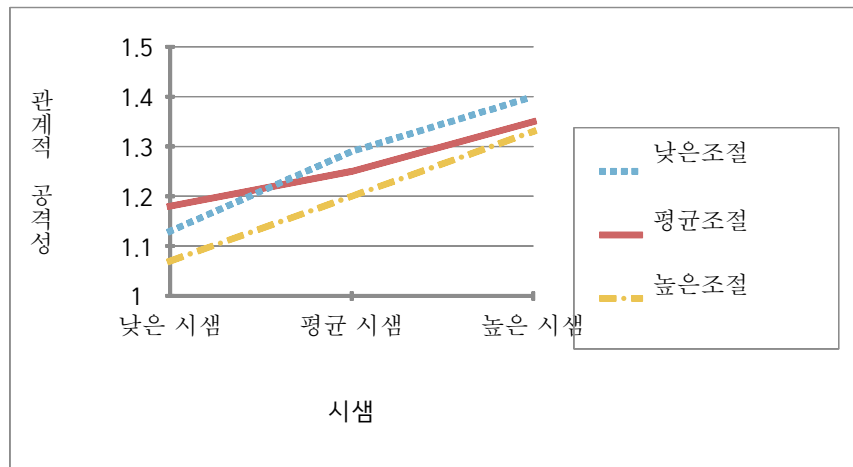


그림 1. 정서조절능력 수준별, 시샘 정도에 따라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해서 정서조절능력이 낮을 경우 시샘의 강도가 강해지면 관계적 공격성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다.

질투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

다음으로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 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표 4에서 제시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질투×정서조절능력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R^2$ 의 변화량은 .007 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질투의 영향에 대해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에서 질투( $\beta=.269, p<.001$ )와 정서조절능력( $\beta=-.111, p<.05$ )의 주효과는 모두 유의하였다. 그리고 2단계에서 질투와 정

표 4.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b	$\beta$	t	b	$\beta$	t
질투(A)	.064	.269	6.55***	-.042	-.179	-.90
정서조절능력(B)	-.040	-.111	-2.70**	-.117	-.328	-3.21***
A×B				.031	.507	2.32*
adj R <sup>2</sup>		.081			.089	
F		25.09***			18.66***	
F변화량		-			5.41*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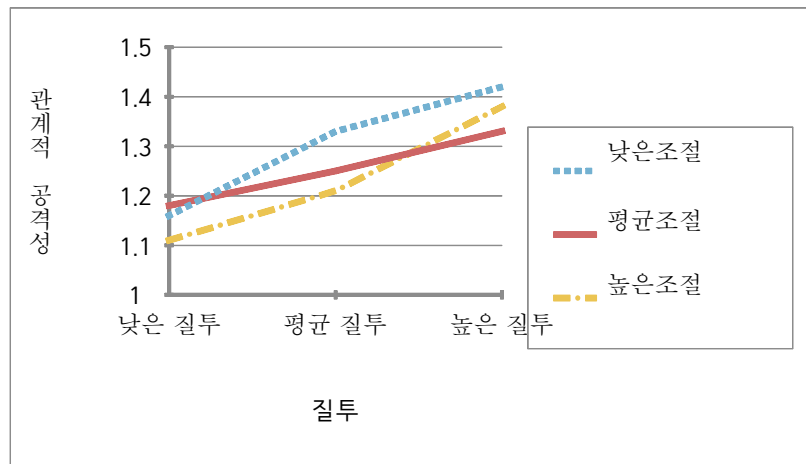


그림 2. 정서조절능력 수준별, 질투 정도에 따라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서조절능력의 상호작용( $\beta = .507, p < .05$ ) 이 유의하여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절효과는 그림 2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를 살펴보면 질투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정서조절능력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낮은 정서조절집단은 시샘에서와 동일하게, 질투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더 가파르게 관계적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높은 정서조절집단은 질투의 강도가 낮거나 평균일 경우에는 가장 낮은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지만 질투가 고(high)로 강해지면 관계적 공격성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질투정서의 경우, 여학생

들이 강한 질투심을 경험한다면 평소 정서조절능력이 높다고 할지라도 관계적 공격성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분노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

마지막으로 분노와 관계적 공격성 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를 표 5에서 제시하

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노×정서조절능력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R^2$ 의 변화량은 .010이 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분노의 영향에 대해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분노( $\beta=.374, p<.001$ )만이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하였고 정서조절능력( $\beta=-.039, n.s.$ )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2단계에서 분

표 5. 분노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b	$\beta$	t	b	$\beta$	t
분노(A)	.191	.374	9.26***	-.007	-.014	-.075
정서조절능력(B)	-.014	-.039	-.97	-.112	-.314	-2.36**
A×B				.062	.439	2.17*
adj $R^2$		.144			.154	
F		46.83***			33.00***	
F변화량		-			4.71*	

\* $p<.05$ , \*\* $p<.01$ ,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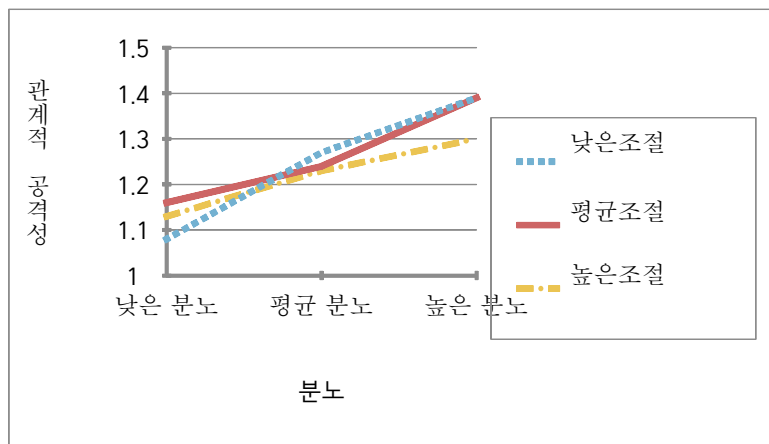


그림 3. 정서조절능력 수준별, 분노 정도에 따라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노와 정서조절능력의 상호작용효과( $\beta=.439$ ,  $p<.05$ )가 유의하여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림 3을 보면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집단은 평균인 집단과 낮은 집단에 비해 그 기울기가 더 완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학생일 경우 분노가 강해져도 관계적 공격성을 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평균조절 집단은 높은 분노를 경험할 경우 낮은 조절 집단과 유사한 정도의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고 있어 강한 분노상황에서는 다소 취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여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또래관계에서 느끼는 시샘, 질투, 분노와 관계적 공격성과의 관련성, 그리고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를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시샘, 질투, 분노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련성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여,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상담적인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샘정서는 관계적 공격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특히 시샘정서는 일반적으로 공격을 잘 예측하는 분노정서에 버금가는 정도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존연구들에서는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질투정서의 영향만이 확인되었던 바, 본 연구를 통해 시샘도 질투만큼 혹은 질투보다 더 크게 관계적 공격성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와

청소년기동안 질투와 시샘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Niu(2009)의 언급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처음으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시샘과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가 탐색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 이 시기의 여자 청소년들은 가족에서 또래집단으로 준거집단을 옮기는 시기로, 그들은 친밀한 친구들을 많이 만들기 원한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질투정서가 나타나며 자기의 관계망을 보호하기 위해 또래를 공격하는 관계적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 또한 정체감을 형성하는 청소년시기에 친구가 자신보다 우월한 특성을 보일 경우, 이를 시샘하여 비교대상이 되는 친구의 지위나 사회적 관계를 파괴하고 싶은 욕구를 느낄 수 있다. 이렇듯 중학교 여학생에서 시샘과 질투가 관계적 공격을 하도록 촉발하는 정서가 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향후 집단따돌림 혹은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에 이들 정서의 영향력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기본적으로 시샘, 질투 정서에 따라 관계적 공격이 유발된다는 것을 여학생들이 알게 된다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더 쉽게 자각하고 그래서 더 건강한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정서조절능력은 관계적 공격성에 작지만 부적인 영향( $r=-.110$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조절능력이 공격성의 표현에 관여한다는 기존연구들의 결과(Dodge, 1991; Kernburg, 1975; Sullivan, Helms, Kliewer, & Goodman, 201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여학생의 집단따돌림예방에서 정서조절방략의 유용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정서조절능력은 일반적으로 정서의 인식, 정서의 수용, 다양한 정서적 방략

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Roberton, Daffern, & Bucks, 2012). 따라서 따돌림예방 프로그램에 정서를 인식·수용하고 이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전략을 포함시킨다면 여학생의 건강한 대인관계형성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서조절능력은 시샘, 질투, 분노 정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조절능력과 정서의 강도가 상호작용하면서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는 피험자가 경험하는 정서의 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었다. 즉, 분노 정서의 경우에는 높은 정서조절능력은 높은 분노를 경험할 때에도 관계적 공격성을 많이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었지만, 질투 정서의 경우에는 평소 높은 정서조절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강한 질투를 경험할 때 관계적 공격성이 더 나타났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비교할만한 기존연구가 존재하지 않아 결과의 의미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의 종류에 따라 정서조절능력의 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낮은 정서조절능력의 경우 공격성에 대한 그 효과가 반감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높은 강도의 정서를 경험할 때 그리고 높은 정서조절능력일 때에 초점을 두고 연구결과의 의미를 살펴보겠다.

우선 첫 번째 가능한 설명은 각 정서들의 표현방식이 성-전형적으로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Conway(2005)에 따르면 여아들은 사회화과정을 통해 남아들과 다른 성-전형적 정서표현방식을 획득하게 된다고 하였다. 여

아의 부모는 분노 정서를 더 자주 금지하며, 그래서 남아보다 여아들이 분노 정서를 더 많이 억압하여 덜 표현하게 된다. 즉 본 연구에서도 여학생들이 강한 분노를 느꼈을 때 더 불편하게 느끼고 그에 따라 공격행동을 더 억제했을 수 있다. 반면 질투는 여성에게 더 허용적인 정서로, 정서조절 능력의 효과가 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평소 정서조절 능력이 높은 학생도 강한 질투심을 느낄 때 관계적 공격을 많이 한다는 결과는 정서의 과잉조절(over-regulation) 부작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Roberton, Daffern, 및 Bucks(2012)는 지나치게 과도한 정서조절은 공격에 대한 통제능력을 감소시킨다고 언급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과도한 수준의 정서 조절은 슬픔과 화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증가시키며, 공격에 대한 통제능력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과도하게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경우 생리적으로 각성 상태에 있게 되어 이것이 공격적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요약하면 정서의 과잉조절은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으며, 질투는 여성에게 성-전형적인 감정이므로 더 쉽게 관계적 공격으로 표현될 수 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특성과 연관되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서조절능력 측정에 사용되었던 박인경(2010)의 척도는 정서지능을 연구한 Goleman(1995)의 척도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이 척도는 정서인식 및 표현, 감정조절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상황에서 타인의 정서인식, 적응적인 대인관계 정도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정서조절 능력이 높다는 것에는 또래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대인관계가 적응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능력이 높은

여학생들은 질투를 느낄 경우 또래의 지지 세력을 활용하여 특정인에 대해 관계적 공격을 더 쉽게 할 수 있다. 반면 분노정서를 느낀 경우에는 이 정서가 직접적인 공격충동과 연관되어 있어 보다 직접적으로 특정인에 대해 공격행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의 예방과 상담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정서조절훈련은 여중생의 관계적 공격을 감소시키는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학생들이 느끼는 정서에 따라 정서조절훈련의 효과는 달리 나타날 수 있는데, 시샘과 분노의 경우에는 정서조절훈련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겠으나, 강한 질투심을 보이는 여학생의 경우에는 소기의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선행연구(Parker 등, 2005; Simith 등, 1992)의 결과로 볼 때 강한 질투심은 자신에 대한 열등감과 대인관계에서의 불안정감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다루면서 정서조절훈련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자기-보고 방식의 질문지는 실제의 표현행동을 잘 대표하지 못했을 수 있다. 이것은 자기-보고의 일반적 한계이기도 하지만, 피험자들은 시샘, 질투, 분노와 관계적 공격성을 묻는 질문지에서 지나치게 도덕적이고 바람직한 정답을 고르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관계적 공격성 평균은 1.25점(범위는 1~4점)이었는데 이러한 낮은 반응경향이 결과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보고 방식과 더불어 또래보고 방식 혹은 실제 정서조

절 행동을 관찰자가 평정하는 방식이 포함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로, 본 연구의 설계는 정서들 간의 위계와 관련성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시샘, 질투, 분노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현 시점에서 충분하지 않아 불가피한 선택이기는 하였다. 하지만 향후 정서들 간의 관계성이 더 분명해진다면 이러한 정서들이 어떤 방식으로 위계 혹은 관계를 이루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는 도구가 비록 이론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질문지이지만, 정서를 느끼는 상황과 좀 더 부합하는 척도개발이 필요할 것 같다. 즉 각 정서에 특정화된 정서조절능력 척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자 청소년들은 질투나 시샘과 같은 정서에 자신의 고통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데(Walker & Parker, 2001), 이 점을 고려한다면 이에 걸맞게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었다. 우선, 선행연구가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하여 분노 혹은 질투 정서만 살펴보았던 것과 달리 시샘이라는 정서를 포함하였다. 따라서 여중생이 느끼는 시샘, 질투 및 분노라는 감정과 관련하여 따돌림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며, 각 정서와 관계적 공격성과의 관계에 따라 각각 다른 해결방법 혹은 예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절효과의 분석을 통해 미래 따돌림 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대상자에게서 가장 효과적인지를 알려주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참고문헌

- 김경희 (1998). 교사용 유아정서지능 평정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광수, 양곤성 (2012). 용서상담프로그램이 집단 따돌림 피해아동의 용서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20(1), 175-192.
- 교육과학기술부 (2012). 제2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및 후속대책.
- 문용린, 최지영, 백수영, 김영주 (2007). 학교폭력의 발생과정에 대한 남녀 차이 분석: 피해자 상담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1(3), 703-722.
- 박건아 (2008). 청소년의 정서표현성,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 자기조절능력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미영, 김은경 (2002). 여고생의 분노 및 대인관계위치와 집단따돌림(괴롭힘) 행위와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8(1), 7-16.
- 박인경 (2010).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따른 청소년의 공격성 및 정서조절능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진규 (2000). 청소년 집단따돌림(왕따) 현상에 대한 사회, 문화적 일 고찰. 청소년학연구, 7(2), 39-71.
- 배재현, 최보가 (2006). 남자 청소년의 우정관계에서 발생하는 질투정서와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 및 공격성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4(6), 87-102.
- 송명자 (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송정아, 김영희 (2001). 학교폭력에 대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행동적 학교 적응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1).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6), 35-50.
- 심은신, 이동훈 (2011). 여중생의 우정관계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 의도귀인과 또래동조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2), 21-42.
- 윤성우, 이영호 (2007). 집단 따돌림 방관자에 대한 또래지지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2), 271-292.
- 윤보나, 유형근, 권순영 (2009).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공감 중심 집단 따돌림 예방 프로그램 개발. 아동교육, 18(4), 171-183.
- 전검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60-78.
- 정계숙 (2002). 교육연극을 적용한 사회적 유능성 중재 프로그램의 집단따돌림 위험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증진 효과연구. 아동학회지, 23(4), 171-183.
- 표준국어대사전 (2008). 국립어학원. <http://stdweb2.korean.go.kr>
- 한영경 (2008).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요인,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유진 (2005).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 및 또래관계의 질, 아동학회지, 26(4), 85-100.
- Bers, S., & Rodin, J. (1984). Social-comparison jealousy: A developmental and motivatio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766-779.
- Berstein, J. Y., & Watson, M. W. (1997). Children who are targets of bullying: A victim patter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4), 483-498.

- Bjorkqvist, K., Lagerspetz, K. M. J., & Kaukiainen, A. (1992). Do girls manipulate and boys fight? Developmental trends in regard to direct and indirect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18*, 117-127.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3.) Hillsdale, JN: Erlbaum.
- Bohnet, A. M., Cmic, K. A., & Lim, K. G. (2003). Emotional competencies and aggressive behavior in school-age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 79-91.
- Cairn, R. B., Cairns, B. D., Neckerman, H. J., Ferguson, L. L., & Garipey, J. (1989). Growth and aggression: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20-330.
- Cole, P. M., Michel, M. K., & Teti, L. O. (1994).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A Clinical perspectiv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73-102.
- Conway, A. M. (2005). Girls, aggression, and emotion regulat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5*(2), 334-339.
- Cooper, M. L., Frone, M. R., Russell, M., & Mudar, P. (1995). Drinking to regulate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A motivational model of alcohol u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990-1005.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Crick, N. R., Bigbee, M. A., & Howes, C. (1996). Gender difference in children's normative beliefs about aggression: How do I hurt thee? Let me count the ways. *Child development, 67*, 1003-1014.
- Dodge, K. A. (1991).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D. J. Peter & K. H. Rubin(Eds.), *The developmental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pp.210-218). Hillsdale, NJ: Erlbaum.
- Dollard, J., Miller, N E., Doob, L. W., Mowrer, O. H., & Sears, R. R. (1939). *Frustration and Aggress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Eisenberg, N., & Fabes, R. A. (1992). *Emotion, reg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In M. S. Clark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4. Emotion and social behavior*. Newbury Park, CA: Sage.
- Eisenberg, N., Fabes, R. A., Guthrie, I, K. & Reiser, M. (2000). Dispositional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heir role in predicting quality of social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1), 136-157.
- Feindler, E. L., & Ecton, R. B. (1986). *Adolescent anger control cognitive behavioral techniques*. New York: Pergamon Press.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 117-140.
- Galan, B., & Underwood, M. K. (1997). A developmental investigation of social aggression amo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3*, 589-600.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Y: Bantam Books.

- Grottpeter, J. K., & Crick, N. R. (2008). Relational aggression, overt aggression, and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67*(5), 2328-2338.
- Izard, C. E. (1997). Emotions and facial expression: A perspective from differential emotions theory. In J. A. Russell & J. M. Fernandez-Dols (Eds.) *The psychology of facial express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Jason Aronson.
- Larsen, K. S., Martin, H. J., Ettinger, R. H., & Nelson, J. (1976). Approval seeking, social cost, and aggression: A scale and some dynamics. *The Journal of Psychology, 94*, 3-11.
- Lingswiler, V. M., Crowther, J. H., & Stephens, M. A. P. (1989). Affective and cognitive antecedents to eating episodes in bulimia and binge ea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8*, 533-539.
- Loeber, R. & Dishion, T. (1983). Early predictors of male delinquency: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94*, 68-99.
- Loeber, R. (1982). The stability of antisocial behavior: A review. *Child Development, 59*, 1431-1446.
- Loudin, J. L., Loukas, A., & Robinson, S. (2003). Relational aggression in college students: Examining the roles of social anxiety and empathy. *Aggressive Behavior, 29*(5), 430-439.
- Loukas, A., Paulos, S. K., & Robinson, S. (2005). Early adolescent social and overt aggression: Examining the roles of social anxiety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4), 335-345.
- Massé, L., & Gagné, F. (2002). Gifts and talents as sources of envy in high school settings. *Gifted Child Quarterly, 46*, 1-15.
- Marsee, M. A., Kimons, E. R., & Frick, P. J. (2004). *Peer conflict scale*. Unpublished rating scale. University of New Orleans.
- Marsee, M. A., Weems, C. F., & Taylor, L. K. (2008). Exploring the association between aggression and anxiety in youth: A look at aggressive subtypes, gender, and social cognit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7*, 154-168.
- Mathes, E. W. (1986). Jealousy and romantic love: A longitudinal study. *Psychological Reports, 58*, 885-886.
- Niu, J. (2009). Internal factors related to relational agg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Educational Research and Review, 4*(1), 1-8.
- Olweus (1994). Annotations: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171-1190.
- Owens, L., Slee, P., & Shute, R. (2000). 'It hurts a hell of a lot...' - The effects of indirect aggression on teenage girl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1*(4), 359-376.
- Parker, J. G., & Low, C. (1999). *Defining and assessing children's jealousy over friends: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he Friendship Jealousy Questionnaire*.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Albuquerque, NM.
- Parker, J. G., Low, C. M., Walker, A. R., & Gamm, B. K. (2005). Friendship jealousy in

- young adolescents: Individual differences and links to sex, self-esteem, aggression, and social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1(1), 235-250.
- Parrott, W. G., & Smith, R. H. (1993). Distinguishing the experiences of envy and jealous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906-920.
- Pennebaker, J. W. (1990). *Opening up: The healing powers of confiding in others*. New York: Morrow.
- Rubin, K. H., & Mills, S. L. (1991). Conceptualizing developmental pathways to internalizing disorders in childhood.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3, 300-317.
- Roland, E. (1998). Reported in Council for Cultural Cooperation Report of the European Teachers Seminar on Bullying in Schools. Strasbourg: CCC.
- Robertson, T., Daffern, M., & Bucks, R. S. (2012). Emotion regulation and aggression.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7, 72-82.
- Salovey, P., & Rodin, J. (1986). The differentiation of social-comparison jealous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6), 1100-1112.
- Salovey, P., & Rothman, A. J. (1991). Envy and jealousy: Self and society. In P. Salovey (Ed.), *The psychology of jealousy and envy*. New York: Guilford Press.
- Siegel, A. W., Cousins, J. H., Rubovits, D. S., Parsons, J. T., Lavery, B., & Crowley, C. L. (1994).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 benefits and risks of their own risk taking.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2(2), 89-98.
- Smith, R. H. (1991). Envy and the sense of injustice. In P. Salovey (Ed.), *The psychology of jealousy and envy*. New York: Guilford Press.
- Smith, R. H., Diener, E., & Garonzik, R. (1990). The roles of outcome satisfaction and comparison alternatives in envy.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9, 247-255.
- Smith, R. H., & Kim, S. H. (2007). Comprehending envy. *Psychological Bulletin*, 133, 46-64.
- Smith, R. H., Parrott, W. G., & Diener, E. (1991). *Subjective unfairness and inferiority as predictors of hostile and depressive feelings in envy*.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Sullivan, T. N., Helms, S. W., Kliewer, W., & Goodman, K. L. (2010). Associations between sadness and anger regulation coping, emotional expression, and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among urban adolescents. *Social Development*, 19(1).
- Suls, J. M. (1977). Gossip as social comparison. *Journal of Communication*, 27, 164-168.
- Suls, J., Wan, C. K., & Costa, P. T., (1995). Relationship of trait anger to resting blood pressure: A meta-analysis. *Health Psychology*, 14, 444-456.
- Thompson, R. A. (1994). Emotional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Serial No. 240).
- Vollong, B. L., McElwain, N. L., & Miller, A. L. (2002). Emotion regulation in context: The jealousy complex between young siblings and its relations with child and family characteristics. *Child Development*, 73(2),

- 581-600.
- Wert, S. R., & Salovey, P. (2004). A social comparison account of gossip,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8(2), 122-137.
- Walker, A. R, & Parker, J. G. (2001). *Does jealousy matter: Interpersonal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self-and peer-reported friendship jealousy*.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March, 2001, Minneapolis, MN.
- White, G. L. & Mullen, P. E. (1989). *Jealousy: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strategies*. New York: Guilford Press.
- Wolling, B. L., McElwain, N. L., & Miller, A. (2002). Emotion regulation in context: The jealousy complex between young siblings and its relations with child and family characteristics. *Child Development*, 73(2), 581-600.
- Zeider, M., & Martews, G. (2000) Intelligence and personality. In R. Sternberg (Ed.), *Handbook of intelligence*(pp591-61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원 고 접 수 일 : 2013. 09. 30.

수정원고접수일 : 2013. 12. 13.

최종게재결정일 : 2013. 12. 17.

Impacts of Envy, Jealousy, and Anger on  
Relational Aggression among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s of Emotional Regulation

Da-Kyum Kang

Jae-Hong Jang

Chung-Ang University

The aim of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s of emotional regulation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negative emotions including envy, jealousy, and anger and relational aggression among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were 546 girls who belong to the only girls classes from 3 middle schools. All data was measured on Objects of Envy, FJQ(Friendship Jealousy Questionnaire), STAXI-K(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Relational Aggression scale and Emotional regulation scale.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girl's envy, jealousy, and anger had positive relations with relational aggression in peer relationship. Second, individuals who over-regulated their jealousy were more likely to behave relational aggression in peer relationship at high jealous condition. However, individuals who over-regulated their anger were more decreased relational aggression at high anger condition.

*Key words* : *envy, jealousy, anger, relational aggression and emotional regulation.*